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수경 · 조현정^{*†}

연세대학교 섬유패션연구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 기술경영대학원

Influence of Self-construal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oo Gyoung Lee · Hyunjung Cho^{*†}

Research Center for Textile and Fashion, Yonsei University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접수일(2014년 4월 4일), 수정일(2014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2014년 7월 30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 on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mpirical study was based on the response of 369 adult females between the ages of 20 and 49 in Seoul. Self-construal was presented as an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respectively.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as an intermediate variable in the research model was composed of two sub-factors that included internalization and awareness. The other (body satisfaction) was measured by two factors (body and fac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s a final outcome variable) were composed of various factors that included clothing concern, skin care, hair care, and weight train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effect of independent self-construal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was not significantly meaningful; however,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fluenced it positively. 2)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appear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ody satisfaction. 3) The body satisfaction also had a negative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 this study.

Key words: Self-construal,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자기해석,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외모관리행동

I. 서 론

[†]Corresponding author

E-mail: hcho@koreatech.ac.kr

본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5C-2011-2-B00184).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모관리의 범위가 화장, 헤어관리, 의복 등을 통한 일상적인 외모 가꾸기에서부터 지방제거수술, 미

용성형수술 등과 같이 강도가 높은 외모변형에까지 확장되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외모관리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집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Park and Suh (2005)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자신감이나 마음의 평화와 같은 내적인 요소보다 돈이나 집안배경, 외모와 같은 사람의 외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외모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또한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외모는 곧 성공이라는 등식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Yun and Lachman(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를 보여,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및 공포감이 더 컸고, 신체적 매력 상실에 대한 염려도 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왜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관리행동에 집착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의 자아(self)는 어떤 현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 및 평가와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어떤 현상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의 자아가 그가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Singelis & Brown, 1995). 이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인 외모관리행동 또한 개인의 자아로 내면화된 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기해석(self-construal)은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기인식의 틀로, 개인의 자기체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도식 중의 하나이며, 자기를 타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실체로 보고 독립성과 자기충족성에 가치를 부여하며 나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자기를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집단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따르며 우리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으로 분류된다(Markus & Kitayama, 1991). 이 두 유형의 자기해석은 문화권에 따라 구성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공존하며, 어떠한 개인도 두 유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

으며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심리적 과정에 차이가 나타난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동·서양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인지, 동기, 정서 등 인간의 제반 심리 과정과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배경도식으로, 문화 내적 비교를 통해 사회행동의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Cho & Kim, 2001; Cho & Myung, 2001;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Park et al.(2009)의 한국인과 서구인을 대상으로 자기해석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서구인들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모중시가치관이 더 강하고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외모중시가치관은 더 높았으나 외모관리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모관리행동에 있어 외모중시가치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주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외모중시가치관과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이 서구인에 비해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은 문화적 자기개념에 의한 차이 즉 독립적 자기개념과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의 차이가 내재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Park et al., 2009). 따라서 자기해석유형의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기저변인으로 보고, 자기해석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기는 유교적 교리에 따른 이상적 인간성[仁·義·禮·知]을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자기개념으로 추구하여, 개성적 자기보다는 보편적 자기로서의 인간 됨됨이를 문화적 가치로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인의 자기정체감은 개인이 자기 내적으로 구성한 사적 정체감보다는 자신이 속한 우리집단의 사회적 및 규범적 정체감을 자신의 사적 정체감으로 내삽시키는 집단정체감의 특성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가 자기개성화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사회가치 추구적이라는 점에서 개인 간의 상이 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갖는 이상적 사회성자기를 개인적 이상자기로 내면화하는 경

향이 있다(Choi, 1992).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우세한 독립적 자기해석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우세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강하여,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은 서구의 다른 나라의 구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회적·규범적 정체감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추구하게 된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사회화 매체 특히 대중매체를 통하여 키가 크고 마른 몸매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외모규범을 개인이 받아들여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개인의 이상적인 자기로 내면화하는 것을 반영한 개념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이다.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형성하게 된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와 느낌으로, 자기개념의 근본적인 핵심이며 평가적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Kang, 1995). 신체이미지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가 성장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커짐에 따라,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함에 따라 변하는 동태적인 개념으로(Meijboom et al., 1999) 즉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배적인 자기해석유형의 차이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과열된 외모관리현상의 기저변인으로 보고, 자기해석유형에 따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이미지가 형성되어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구체적인 심리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해석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자기인식의 틀인 자기해석은 개인이 자기를 타인과 관련되거나 분리된 존재로 보는 사고, 감정, 행동의 총체로 정의된다(Singelis, 1994). Ma-

rkus and Kitayama(1991)는 독립적 자기해석은 사회적 상황과 분리되어 있는 경계가 명확한 하나의 안정된 자기로, 개인의 존재가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요소로 자기를 정의하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유연하고 가변적인 자기로, 자기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타인과의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규정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 개인의 사고과정, 행동동기, 감정 경험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광고수용자들이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다수의 태도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해석이라는 문화적 지향성에 따라 광고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Lee(2003)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광고에 대한 태도형성 시 자기의견의 중요성과 정적 관련이 있는 반면, 의존적 자기해석은 타인의 태도를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태도와 다수의 태도가 다르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신의 원래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의존적 자기해석은 좀 더 다수 집단의 태도에 자신의 태도를 근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소비행동에 대한 자기해석의 영향력을 살펴본 Chun et al.(2006)의 연구에서 집단중심 성향의 집단이 개인중심 성향의 집단보다 규범적 동조성이 높은 반면 반동조성과 유행혁신성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독립적 자기해석자는 자신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 보는 반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자는 어떤 대상, 행위, 사건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욕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Lee et al., 2005). 따라서 한국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Son(2011)의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신체감시가 낮아지고,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객체화 신체의식과 자기해석과의 상관 정도를 비교한 Gim et al.(2009)의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감시성과 부적 상관이 일본에서 나타났다, 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과 정적 상관이 세 나라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독립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 신체기준을 자신의 신체와 비교평가하는 개념인 신체감시성이 낮아지고, 의존적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문화적 신체표준

을 내면화하고 이를 기준삼아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신체감시성과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자기를 사회적 상황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독립적 자기해석은 자신의 의견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자신의 독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자기를 사회적 관계로 정의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에 근접시키는 것(Lee, 2003)과 같이 자기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 규범에의 동조와 반동조의 정도(Chun et al., 2006), 신체적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정도(Gim et al., 2009)가 달라진다. 즉 자기해석의 유형에 따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치를 두는 특성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화 매체를 통하여 강력하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외모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정도 즉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독립적 자기해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질 것이다.

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그러한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Heinberg et al.(1995)에 의해 제안되었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는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각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는 인식(awareness) 차원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수용하고 사용하는 내면화(internalization)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외모를 다루고, 지각하고 해석하는 맥락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외모는 사회적 맥락과 문화의 연속적인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Kaiser, 1990). 즉 각 사회는 당시의 문화 전반의 영향을 받아

신체 및 외모에 관한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Kim, 1996).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준이 과거에는 예술영역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파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주로 대중매체에 의해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Heinberg, 1996). Reed(1998)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외모기준을 수용할수록 신체만족도가 낮고 위험한 체중관리행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같이 개인이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신념은 자기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Thompson and Heinberg(1999)는 우리 문화에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가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TV,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사회의 이상적인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기준으로 삼은 개인들이 이상적인 미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된다고 하였다. Schutz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의 부분, 기능 혹은 과정에 대하여 지니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Secord & Jourard, 1953). 개인의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데(Kaiser, 1990), 비교기준과 지각된 자기와의 차이가 커질수록, 즉 부정적인 모순이 생길 경우에 불만족하는 감정이 유발된다(Oliver, 1980). 신체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어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신체에 관한 광범위한 행동영역에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Gim et al., 2009).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로 내면화하고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복, 화장, 피

부관리,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의 행동을 외모관리행동이라 한다. 즉 내면화 과정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기준을 형성하고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에 도달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을 동기화시킨다는 것이다(Kaiser, 1990). Morrison et al.(2004)의 연구에서 개인은 이상과 실제 신체상의 차이에 의해 신체불만족이 높아질수록, 섭식장애나 성형 및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Bat and DeLong(1990)은 이상적 체형을 목표로 하는 젊은 연령층이 이상적인 체형을 이룰 수 없는 데서 오는 불만감으로 신체만족도가 낮으며, 따라서 체중감량, 보디빌딩, 성형수술 등을 통해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Kim et al.(2006)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이 체중관리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가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한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연구가설 1.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신체만족도는 외모관리행동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연구모형에서 이론변수들에 대한 하위 측정변수의 선정을 위해 예비분석으로 측정변수들의 수렴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서 요인적재량(λ) 0.5 이하, 공통성(communality) 0.5 이하, 그리고 요인적재량이 다른 요인들에 동시에 높게 부하된 경우, 그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을 0.6 이하로 낮추는 변수들은 제거되었다.

자기해석은 Singelis(1994)가 개발한 척도 중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한 Yang and Kim(2010)의 수정된 자기해석척도문항 중 성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독립적 자기해석 7문항,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6문항 총 13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

a: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Fig. 1. Research model.

석 및 신뢰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정(Cronbach's α)을 실시한 결과, 앞에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타당성이 낮은 변수들을 제거하였다. 최종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독립적 자기해석을 측정하는 3문항(Inde. SC1: 나는 많은 점에서 타인과 다르며 독특한 것을 즐긴다, Inde. SC2: 타인과 독립적인 나의 개인적 정체성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Inde. SC3: 생생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측정하는 3문항(Interde. SC1: 나에게 집단에 의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Interde. SC2: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것이다, Interde. SC3: 나는 때때로 타인과의 관계가 나 자신의 성취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이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SATAQ)의 내면화(Internalization: SATAQ-I)와 인식(Awareness: SATAQ-A) 중에서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Cho(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면화 6문항, 인식 4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정결과 내면화의 측정문항에서 요인적재량이 낮게 적재된 3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3문항(Internalization 1: 마른 여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그렇게 마르고 싶어진다, Internalization 2: 마른 여자의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Internalization 3: 웃은 마른 여자가 입어야 더 예뻐 보인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인식에 대한 4개의 측정문항(Awareness 1: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멋지고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다, Awareness 2: 우리 사회에서는 뚱뚱한 사람들도 보기 괜찮다고 여겨진다, Awareness 3: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 Awareness 4: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은 예비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없어서 4문항을 평균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는 Cash(2000)가 개발한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MBSRQ)의 하위척도인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 BASS)의 총 15문항 중에서 국내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Cho(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문항들에 대하여 요인분석 결과 각각 얼굴 및 몸의 만족도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얼굴의 만족도 및 몸의 만족도 요인들의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은 모두 0.6 이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를 구성하는 두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몸의 만족도 3항목, 얼굴의 만족도 3항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외모관리행동은 Hwang and Kim(2006)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5가지 차원(의복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1, 체형관리 2)에 관한 5점 리커트형 총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0개 문항은 각각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의복관리의 2문항(Clothing Concern 1: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최신 유행의복을 구입한다, Clothing Concern 2: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최신 유행액세서리를 구입한다), 피부관리에 대한 2문항(Skin care 1: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얼굴 피부마사지 또는 팩을 자주 한다, Skin care 2: 나는 피부관리를 위해 선크림, 미백, 주름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헤어관리 또한 2개의 측정항목(Hair care 1: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헤어스타일링 제품(무스, 스프레이, 젤) 및 헤어에센스 등을 자주 사용한다, Hair care 2: 나는 외모관리를 위해 파마를 한다)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평균값이 사용되었다. 체형관리에 대한 4문항은 2개의 하위요인, 노력형 체형관리(Weight training 1: 나는 평소에 체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한다, Weight training 2: 나는 평소에 체중관리를 위해 먹는 것을 조절하고 있다)와 인위적인 체형관리요인 2문항(Weight training 3: 나는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 후 일부러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Weight training 4: 나는 체중감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다)으로 구성되어 역시 평균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관리행동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2년 12월에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 380개의 설문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을 제외한 369개의 설문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 구성비율은 총 369명의 응답자 중 20대 여성이 132명(35.8%), 30대 여성은 133명(36.0%), 40대 여성이 104명(28.2%)으로 20, 30대 여성은 비슷한 비율

로 분석에 포함되었고, 40대 여성의 비율이 20, 30대 여성과 비교해서 조금 낮았다. 직종별 구성비율을 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63.7%, 학생이 7.9%, 전업주부가 20.9%, 그리고 무직 및 기타가 7.7%였다. 월소득별 표본구성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이 15.8%,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소득자가 34.1%,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는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은 SPSS 20.0으로 분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및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은 AMO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하여 Anderson and Gerbing (1988)의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변수 선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수행하였다.

1.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론변수인 5개의 구성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측정변수들이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5개의 구성개념들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하위측정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일차적인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었고, 개념 및 수렴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AMOS 19.0을 이용하여 구성개념들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값을 이용한 신뢰성 검증(reliability test)도 실시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각 이론변수의 평균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먼

Table 1. The result of overall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Mean	Indicator variables	Standardized estimates (λ)	t	Cronbach's α	Average variance extracted	Composite reliability
Independent self-construal	3.494	Inde. SC1	0.911	n/a ^a	0.809	0.611	0.898
		Inde. SC2	0.771	7.679***			
		Inde. SC3	0.614	4.988***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3.256	Interde. SC1	0.837	n/a	0.811	0.647	0.769
		Interde. SC2	0.764	6.481***			
		Interde. SC3	0.722	6.013***			
SATA ^b	3.447	Internalization	0.818	n/a	0.732	0.583	0.720
		Awareness	0.706	7.942***			
Body satisfaction	2.982	Face	0.795	n/a	0.708	0.539	0.695
		Body	0.612	4.33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2.905	Clothing concern	0.812	n/a	0.770	0.612	0.750
		Skin Care	0.733	6.335***			
		Hair Care	0.701	4.690***			
		Weight training 1	0.688	5.003***			
		Weight training 2	0.720	4.505***			

$\chi^2=188.62^{***}(df=80)$, AGFI=0.949, CFI=0.933, TLI=0.962, RMR=0.044, RMSEA=0.061

*** $p<.01$

a: not available

b: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저 χ^2 검증결과를 보면 χ 값이 188.62(df=80, p value is less than 0.001)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fit index)들 중 χ^2 검증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고, 또한 χ^2 값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어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확인적 요인모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고,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Bagozzi & Yi, 1988). 확인적 요인모형의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AGFI와 RMSEA는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고,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또한 모두 0.9 이상으로 높아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해석기준(Hu & Bentler, 1999)에 근거할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 간의 경로계수인 표준적재량(λ) 값이 모두 양호하고(0.6 이상), 경로계수에 대한 t 검증결과, 모든 적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p < .01$), 모든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도 모든 항목에서 Bagozzi and Yi(1988)가 제시한 기준인 복합신뢰도 0.6 이상, 분산추출지수 0.5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구성개념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이었어서 5개의 구성개념에 대한 복수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Nunnally, 1967). 또한 구성개념 간의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ϕ 계수를 구하였고<Table 2>, 그 결과 ϕ 계수의 신뢰구간($\phi \pm 2SE$)에 1.0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론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Anderson & Gerbing, 1988).

2.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9.0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검증결과를 다음의 <Fig.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AGFI, CFI, TLI, RMR, RMSEA)를 살펴보면 앞의 측정모형에서 제시한 적합도의 기준치를 참고해 볼 때, 매우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가설 1은 자기해석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자기해석은 독립적 자기해석과 의존적 자기해석 두 가지로 나뉘어졌고, 각각 상반된 세부 가설이 설정되었다. 독립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경로계수가 음의 값을 보여서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독립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각 국가의 개인주의 수준이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Bond and Smith(1996), 독립적 자기해석이 다수의 태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Lee(2003)와 다수 의견의 동조에 부적 영향을 미친 Cho and Kim(200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태도와 다수의 태도가 다르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피험자가 다수 의견에 근접하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Lee, 2003), 독립적 자기해석자들의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량도 50% 이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집단주의

Table 2. Correlation matrix of constructs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0.12 (0.083)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0.15 (0.031)	0.33 (0.054)		
Body satisfaction	0.23 (0.067)	-0.14 (0.030)	-0.46 (0.069)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34 (0.054)	0.51 (0.040)	0.25 (0.056)	-0.51 (0.072)

() : SE

** $p<.05$, *** $p<.01$

a: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Fig. 2.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사회에서는 독립적 자기해석이 강한 사람들도 집단주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속 문화의 특징에 따라 서로 행동이 달라진다. 즉 개인의 문화 성향과 사회의 문화적 특징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Cho & Kim, 2001). 급속히 전개되었던 사회의 민주화,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발전, 서구식 교육제도와 교육의 보편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사회에서, 개인을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고 독특성을 표현하는 등 개인지향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 여기는 독립적 자기해석의 특성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집단에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외모규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설 1-2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었고,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설 1-2의 경로계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어,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의존적 자기해석이 Lee(2003)의 다수 의견 고려의 중요성과 Gim et al.(2009)의 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을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할 수록 자신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역할, 집단소속감,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집단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규범에 따르게 되므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집단의 외모규범인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과 이상적인 외모의 사회적 기준을 인지하고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설 2에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가설검증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방향을 나타내어서,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chutz et al.(2002)과 Cho(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이상적인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게 되면,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기준은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는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이는 신체불만족이 높아질수록 섭식장애나 성형 및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나타났다는 Morrison et al.(2004)

Table 3. The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Research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i>t</i>	Results
H1-1	Independent self-construal →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0.112	-1.005	Rejected
H1-2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physical appearance	0.364	2.411**	Accepted
H2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 Body satisfaction	-0.802	-10.663***	Accepted
H3	Body satisfaction →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443	-4.087***	Accepted

** $p < .05$, *** $p < .01$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 자신의 외모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의 가설검증한 결과를 요약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모관리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의 기저변인으로 본 자기해석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신체만족도에, 이는 다시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나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모관리행동은 문화적 자기개념에 의한 차이가 내재되어 나타나 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집단주의 사회인 우리나라

에서는, 개인의 존재가 타인들과 독립적이고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적인 요소로 자기를 정의하는 독립적 자기보다, 자기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의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고, 감정, 행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타인과의 조화와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의존적 자기의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성을 갖는 이상적 사회성자기를 개인적 이상자기로 내면화하게 되므로(Choi, 1993),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외모의 중요성과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개인의 이상적인 자기로 내면화하게 되는데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신의 실제 신체모습과의 차이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상적인 외모를 성취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열된 외모관리현상의 기저변인을 규명하고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인의 자기가 외모관리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료수집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여성들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성인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력적인 외모는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외모향상을 위한 성별, 연령별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기해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그리고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나라

라의 표본과 개인주의 문화권인 서구집단과의 연구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gozzi, R. P., &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ond, R.,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e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11-131.
- Cash, T. F. (200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p. 125-130). New York: Pergamon Press.
- Cho, G. H., & Kim, E. J. (2001). Cultural dispositions and conformity to peer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1), 139-165.
- Cho, G. H., & Myung, J. W. (2001). Cultural dispositions and types of self-conscious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11-139.
- Cho, S. M. (2000).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S. C. (1992). Cultural self of Korean: A heuristic view. *Proceedings of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263-274.
- Chun, M. S., Lee, S. G., & Koh, A. R. (2006). The effect of cultural tendency on clothing consump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7(2), 277-300.
- Gim, W. S., Park, E. A., & Takemoto, T. (2009).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esteem and self-construals in East Asian women: A cross-national study o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4(1), 23-46.
- Heinberg, L. J. (1996). Theories of body image: Per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J. K. Thompson (Ed.), *Body image,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n integrative guide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pp. 27-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wang, J. S., & Kim, Y. H. (2006). The effect of appearance management o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3), 143-155.
- Kang, H. W. (199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Paju: Kyomunsa.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ed.). New York: Macmillan.
- Kim, A., Lee, S. G., & Koh, A. R. (2006). Effects of media involvemen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preteen boys and gir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1), 1538-1549.
- Kim, Y. J. (1996). *The effect of fashion images of Korean women's self-concept and clothing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LaBat, K. L., & DeLong, M. 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Lee, S. S. (2003). Change of ad attitude when not consistent with majority's attitude: From the perspective of self-construal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4(5), 33-47.
- Lee, S. S., Kim, W. S., & Kim, J. S. (2005). Understanding consumer complaint intentions and behavior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construal.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6(1), 19-4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eijboom, A., Jansen, A., Kampan, M., & Schouten, E. (1999). An experiment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ncern about body shape and weight in restrained e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5(3), 327-334.
- Morrison, T. G., Kalin, R., & Morrison, M. A. (2004). Body-image evaluation and body-image investment among adolescents: A test of sociocultural and social comparison theories. *Adolescence*, 39(155), 571-592.
- Nunnally, J.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7, 460-469.
- Park, E. A. (2002). The era of body: Consumer psychology to

- pursue beauty.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for Consumer Advertising Psychology Symposium*, 49–60.
- Park, E. A., Kim, H. J., & Suh, H.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struals, body valu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 cross-cultural study.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0(2), 251–274.
- Park, J. H., & Suh, E. K. (2005). Lay beliefs of selfhood and personal theories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4), 19–31.
- Reed, L. R. (1998). *Image and attitude: The impact of media images on the self-esteem, body image and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Rhode Island, Kingston.
- Schutz, H. K., Paxton, S. J., & Wertheim, E. H. (2002). Investigation of body comparison among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9), 1906–1937.
- Secord, P. F., & Jourard, S. M. (1953).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 343–347.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ingelis, T. M., & Brown, W. J. (1995). Culture, self, and collectivist communication: Linking culture to individual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1(3), 354–389.
- Son, E. J. (2011). Differences of body image and factors influencing body image through the life span of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6(3), 357–377.
- Thompson, J. K., & Heinberg, L. 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Yang, Y., & Kim, M. J. (2010). The effects of self-construal, focused emotion, and the context in the advertisement on antismoking public service advertising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1(2), 245–270.
- Yun, R. J., & Lachman, M. E. (2006). Perceptions of aging in two cultures: Korean and American views on old age.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1, 55–70.